충남기계공고 동문회보(월간)

총동문회 지표
❖ 참여하는 동문회
❖ 협력하는 동문회
❖ 모교돕는 동문회

설송소식

2023년12월 제285호 http://cnmhs.net

주식회사 대미농수산
대표 정 관 성 (17회)
010-5401-5090
대전시 동구 송촌남로11번길 47 (용전동)
Tel (042) 638-4988 Fax 638-4983

창간 : 1999년 3월 31일 발행인 : 정관성 편집인 : 임동현 인쇄인 : 민운기 사무처 : (042)252-5656 팩스 : (042)584-5658 E-mail:2525656@hanmail.net

"힘들게 행사 준비한 28회 친구들에게 격려의 박수 쳐 달라"

28회 졸업30주년기념행사 12월 16일 대전 동구 호텔 선샤인에서 개최

28회 졸업30주년기념행사(추진위원장 김진복)가 12월 16일(토요일) 저녁 7시 대전복합터미널 건너편 호텔 선샤인 3층 오아시스홀에서 개최됐다. "충기28회 조국근대화기수가 28청춘으로 다시 뭉쳤다"는 표어를 내걸은 충기인의 아름다운 전통인 졸업30주년 기념행사는 이날 전국에 폭설주의보가 내려진 궂은 날씨 속에서도 정성을 다해 치러졌다.

이날 모교 28회 졸업30주년기념행사는 은사님들을 모시고 정관성 총동문회장과 총동문회 심상정 고문(1회)과 서경원 고문(15회), 이종업 전 모교 교장(14회), 21회, 22회, 23회, 24회, 30회 등 선후배와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진복 추진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총동문회와 선후배님들의 도움으로 기념행사를 열게 되어 감사드린다"며 "궂은 날씨에도 참석해주신 내빈과 동문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앞으로 28회 모임을 잘 키워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추진위원장은 개회사 도중 고교시절의 고생스러운 기숙사 생활을 회상하다 울컥하여 눈물을 흘린 후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힘들게 행사를 준비한 저와 우리 28회 친구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쳐 달라"고 요청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 정관성 총동문회장,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심상정 총동문회 고문, 이종업 전 모교 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정관성 총동문회장은 "공자는 나이 오십을 가리켜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知天命)으로 불렀다"며 "고교 졸업 후 30년이 지나 50대의 나이에 동기 친구들과 졸업30주년 기념행사를 하게 된 것은 아주 뜻 깊은 일"이라고 격려했다.

28회 동문들은 이번 행사를 위해 수고해준 정관성 총동문회장과 임동현 편집위원장, 이용주 총동문회 조직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28회 동문들은 총동문회발전기금으로 200만원을 전달하는 한편, 은사님께 절하고 선물을 증정하였다. 케익커팅에 이어 교가제창으로 순서를 마쳤다.

김진복 추진위원장과 안성찬 장상구 강문식 윤수원 정희철 유경식 김송환 정대영 김진태 정제풍 안창고 도중관 주남규 오유진 김기욱 표승규 김동현 양주석 서정문 김용상 오철순 김서호 이흥기 박성철 송영민 추진위원들은 "선후배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기위해 앞으로 28회 동문회를 더욱 조직화하여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 임동현 편집위원장 –

28회 졸업30주년기념행사가 12월 16일 호텔 선샤인에서 은사님들을 모시고 개최됐다.

28회 동문들이 총동문회기를 들고 입장하고 있다.

졸업 30주년을 기념하는 축하케익을 자르고 있다.

2024년 총동문회 신년교례회 및 시산제

청룡의 해 갑진년을 맞이하여 충기동문의 건강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2024년 총동문회 신년교례회 및 시산제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24년 1월 13일(토) 오전 10시 - 오후 2시(12시부터 점심)
2. 행사 내용 (1) 시산제 : 오전 10시 - 10시30분(수통골 버스종점) (2) 수통골 빈계산 등반 : 오전 10시30분 - 12시
   (3) 신년교례회 : 12시 - 오후 2시 〈공용주차장 맞은편 수통골본가 2층(유성구 수통골로 47-13)〉
3. 기타 안내 사항 (1) 등산 참여 못 할 시엔 신년교례회 장소로 오시면 됩니다.
   (2) 본 행사는 총동문회와 충기산악회(회장 진춘식)가 함께 주관합니다.
   (3) 문의 연락처 : 총동문회 사무실 (042-252-5656)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장 정 관 성

“늦게 시작했지만 28회동문회는 영원하리라!”

내빈 영접

반갑다 친구야

국기에 대해 경례

내빈 소개

감사패 전달

총동문회 발전기금 전달

스승님께 큰절

스승님과 기념촬영

김진복 추진위원장 폐회 인사

“전기과 재학생 후배 6명에게 장학금 전달하며 격려”

〈전기과 제49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가수 초청하여 신나는 여흥

전기과동문회 제49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가 12월 15일 마리드엘웨딩홀에서 이우정 총동문회 고문(3회)을 비롯하여 70여 명의 동문 선 · 후배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김희곤 회장(16회)은 개회사에서 “여러모로 힘든 계묘년 한 해를 잘 지내시어 감사드린다”며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하고 청룡의 새해에는 가정과 사업장에 행복이 가득 넘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관성 총동문회장(17회)의 격려사가 있었고 이정식 전기과동문회 고문(8회)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희곤 회장은 전기과 재학생 후배 6명에게 전기과동문회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2부 순서로 가수 등을 초청하여 신나게 여흥을 즐겼다. 전기과동문회는 역사와 전통을 지키며 충기총동문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어 자랑스럽다.

– 공대성 전기과동문회 총무 –

전통 있는 전기과동문회가 제49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을 개최하여 모범을 보였다.

김희곤 회장이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가수들이 출연해 송년의 밤을 신나게 만들었다.

“청룡의 기운 18회 동문들 저력으로 행사 멋지게 치렀다”

〈18회 졸업40주년기념행사〉 추억의 교복과 교련복 입고 다이아몬드스텝

18회 동문들이 2023년 12월1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졸업40주년기념행사를 가지고 40년 전으로 돌아가 푸르렀던 청춘의 꿈을 얘기하면서 각자들 바쁘게 살아온 인생여정에서의 희노애락을 꺼내 놓으면서 인생 최고의 시간을 가졌다.

<관련기사 6면>

특히 학창시절을 회상하면서 교복과 교련복을 준비하여 모임의 의미를 가장 최상으로 구현하였고 80년대 초 유행했던 추억의 다이아몬드 스텝을 밟아가면서 그 시절 음악에 맞춰 한데 어우러진 모습은 영락없이 순수 고딩 그 자체였다.

은사님을 모셔서 정성스런 선물을 드렸으며 큰절을 올렸다. 은사님들은 제자들을 안아 주고 어루만져 주시며 온갖 시련과 모진 풍파를 겪으며 꿋꿋하게 잘 살아온 제자들에 감사하였다.

18회 졸업40주년기념행사에는 총동문회에서 정관성 회장을 비롯하여 민운기 사무총장 이하 4명의 국장이 참석하였다. 총동문회에서는 18회동문회에 금일봉 50만원을 전달하였고, 18회에서는 총동문회에 500만원의 발전기금을 후원하였다.

또한 편집위원 5명이 참석하였으며 12월 16일에 졸업30주년을 준비하는 28회 김진복 추진위원장이 참석하여 일일이 체크하며 벤치마킹을 하였다.

오래 전부터 준비한 40주년행사가 아니었는데 짧은 기간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동기들이 참석하고 거금을 후원할 수 있었을까? 궁금했다. 누구 한 사람을 추진위원장을 내세우고 추진한 행사도 아니었다.

그 답은 행사의 진행과 식순에 따라 누가 먼저 랄 것도 없이 서로서로 공동으로 역할을 분담하였고. 행사 기금 납부자 명단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이게 청룡의 기운을 가진 18회 동문들의 저력이다.

내년에는 갑진년 청룡의 해! 18회의 해이다. 18회 선배님들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다. 지금까지 충기인이란 자부심 하나로 가장 멋지게 살아온 18회 선배님들께 무한한 존경을 드린다.

서울 가는 KTX 안에서 12월 1일 밤 10시 30분 올림

– 임동현 편집위원장 –

18회 친구 화이팅!

장영우 동문 건배 제의

축하케익 커팅

총동문회 격려금을 받고

총동문회 발전기금 전달

선생님 절 받으세요

은사님과 함께

친구 1

친구 2

친구 3

친구 4

친구 5

친구 6

추억의 팝송 밴드 연주

고교시절 춤 꽤나 추었지

“밝아오는 갑진년 청룡의 해 활력 넘치는 시간되길 소원”

경기북부동문회 송년회, 경품 70여 개 추첨하여 모두에게 전달

경기북부 동문들은 12월 9일(오후 5시~9시) 파주소재 센트리움 예식홀에서 송년회를 갖고 한해를 되돌아보면서 우정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서울동문회 육정관(15회) 회장을 비롯하여 윤종길(19회) 부회장, 송석진(21회) 총무, 박종선(22회) 후임 총무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또한 23회 박덕신 동문이 동기생 최종필(아산병원), 라신현(광양제철), 윤병로 동문을 초대하여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김인기(7회) 2대 회장이 제일 먼저 도착했고, 뒤이어 김민철 신병철 강문식 임동현 박경하 정인창 김용진 육정관 윤중길 송석진 박종선 박덕신 최종필 라신현 김승환 류운선 최성구 최용선 유재환 송영호 김경수 이동희 김흔식 김성수 양연호 강희창, 최재국 최재흥 윤병로 동문까지 30명이 참석하였고 부부동반으로 11명의 동문가족이 참석하여 41명에 이르렀다.

제7대 동문회장을 맡아 안정적으로 동문회를 이끌었던 김민철(14회) 회장에게 동문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전달하고 노고를 위로하였다.

이어 2024년을 이끌 제8대 동문회장으로 최기춘(15회) 동문이 선출되었다. 평생을 군인의 길을 걸었고 경기북부동문회를 발족하였으며 두 차례의 총무국장, 부회장, 수석부회장직을 이어 오면서 모든 동문으로부터 가장 칭송을 받고 있다. 마침 서울 동문회를 이끌어갈 육정관 회장과는 15회 동기생으로 서울 동문들과 경기북부동문들과의 교류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날 송년회에는 십시일반으로 400만원의 후원성금이 답지하였다. 푸짐한 경품은 가족들로부터 최고의 극찬을 받았다. 가정에서 꼭 필요한 주방용품으로 구성하였다.

박덕신 동문이 맛김 10세트, 임동현 동문이 컨벡션히터 5대를 후원하였고 그 외에 55개의 선물을 더 준비하여 총 70개의 경품을 가지고 추첨을 통해 전달하였다.

정말 총알같이 가는 시간이다. 이구동성으로 벌써 12월 이라는 게 실감나지 않는다고들 한다. 다들 바쁘게 살아왔고 올해는 유난히 경제사정이 녹록치 않다.

밝아오는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에는 힘찬 용솟음으로 모든 동문들이 활력 넘치고 행복한 시간들로 꽉꽉 채워지기를 소원하면서 교가 제창으로 마무리하였다.

– 임동현 편집위원장 –

“선배님들 훈훈한 덕담속에 한해 회고”

인천동문회 송년회 차기 회장도 뽑아

인천동문회(회장18회 김창국)는 12월 6일 오후 7시 인천 삼현가식당에서 25명 인천지역 동문이 참석하여 송년회를 가졌다. 이날 송년회에는 3회 임헌호 선배의 훈훈한 덕담으로 동문들의 삶에 위안이 되었으며, 전종현 전 총동문회장도 참석하여 동문 간의 우애를 다지자고 강조하였다. 또한 정희(20회) 동문이 신임회장으로 추대되었다.

공로 · 감사패 수여 신임회장 선출

천안동문회 송년의 밤 23명 동문 참석

천안동문회 (회장 나수영 총무 윤수원)은 12월 21일 탐라일식식당에서 23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겸해 송년의 밤 행사를 진행했다. 천안동문회는 그동안 동문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준 2회 김근중, 7회 임창홍 동문에게 공로패를, 1년 동안 동문회를 잘 이끌어 준 16회 나수영 회장에게 감사패를 동문회 명의로 수여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4년을 이끌어갈 신임 회장에 20회 정광조 동문이 당선되었고, 총무는 유임되었다.

나수영 회장은 “무척 추운 날씨에 참석해 주신 동문님께 감사드란다”며 “올해 잘 마무리 하시고 건강하게 내년 청룡의해에 다시 뵙겠다”고 인사했다.

– 윤수원 천안동문회 총무 –

“이제부터 시작일세. 우리 함께 멋지고 아름다운 추억 만들면서 살아 가세나”

〈노년의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여보게 친구야. 우리 함께 엄마 손 잡고 코 흘리며 빨래터에 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흰머리 희끗희끗 보이는 친구를 보니 우리도 저 하늘 넓은 곳 찾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가는 줄 오는 줄 모르고 지나온 수십 년의 세월이 흰머리와 주름으로 얼룩졌으니 이제사 세상을 알게 되는 것 같구나. 여보게 친구야. 아카시아 꽃향기 함께 따먹던 그때가 그립구나. 배고프면 아카시아꽃을 먹던 그 시절 말일세. 이제는 중년의 슬픔도 기쁨도 가랑잎 떨어지듯 하나하나 추억 속으로 사라지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늘어만 가는 주름뿐이니, 여보게 친구야. 이제부터 시작일세. 우리 함께 멋지고 아름 추억 만들면서 살아 가세나. 이번 겨울지나 내년엔 봄의 향기 듬뿍 맡으면서 아카시아꽃 따먹으러 다시금 고향으로 가세나. 어린 시절 그 추억에 다시금 즐거운 시간들 만들어 보세나. 자네가 먼저 가면 날 기다리시게. 내가 먼저 가면 친구를 맞이할 테니 말일세...

“부부동반으로 사랑과 우정의 한해 되돌아보았다”

14회동문회 송년회, 계좌이체 캠페인 등 모교사랑 동참 홍보

14회 동문들은 12월 2일 선샤인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부부동반으로 60여 명의 동문가족과 함께 사랑과 우정의 송년 모임을 가졌다.

14회를 이끄는 백채준 동문회장은 축사에서 “가장 사랑과 우정이 넘치고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 14회 동문회로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14회동문회 송년회에는 정관성 총동문회장을 비롯하여 윤대진(5회) 고문, 권오진(31회) 학교 운영위원장이 참석하였다. 이종업(14회) 전 모교 교장도 퇴임 이후 처음으로 정기총회에서 참석하여 14회 동문의 일원으로서 동문들과 동행하며 자리를 빛내주었다.

백채준 회장과 임화섭 편집위원은 개인적으로 총동문회에 발전기금을 보내주었다. 백채준 회장은 월1만원 계좌이체 캠페인에 동참하여 10년 동안 납부기간을 설정하였다.

또한 14회 동문 중에는 모교 동문회에 월 10만원씩 후원했던 송수헌 선배도 참석하여 회포를 나눴다.

– 임동현 편집위원장 –

“건강과 친구의 소중함을 느끼며 살자”

방직과9회청심회 부부동반 송년모임

충기 동문회 중에 가장 동문회와 모교를 사랑하는 소모임으로 알려진 방직과 9회 모임인 청심회(회장 김순규)가 12월 9일 연말 부부동반 송년모임을 가졌다. 30여 년 넘게 모임을 갖고 있는 청심회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저녁에 모임을 갖는데 총동문회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청심회는 매년 연회비라고 할 수 있는 발전기금을 빠지지 않고 납부하고 있는데 올해도 연초에 전 회원이 거두어 총동문회에 보내와 모범을 보이고 있다.

김순규 회장은 “요즘 유행하는 건처재사우(健妻財事友:건강, 아내, 재산, 일, 친구)라는 말이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다”며 “계묘년 한해를 잘 보내고 갑진년 새해를 맞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충남기계공고 총동문회 회칙 제 11조 7항 1호에 의거하여

23대 동문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래와 같이 결성되었기에 공고하는 바입니다.

선거관리 위원회

성명	회수	전화번호	비고
정관성	17	010-5401-5090	선거관리위원장
모용수	1	010-5407-9864	선거관리위원
정성태	13	010-9481-9936	선거관리위원
서경원	15	010-5455-7531	선거관리위원
고창준	18	010-7515-0772	선거관리위원
안윤기	17	010-8255-0084	간사, 의결권없음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국립대전현충원참배 안내

충기14회에서는 2024년에도 첫행사를 선열들의 뜻을 기리고 동문회 발전을 염원하며 현충원 참배를 갖고자 하오니 동문 선후배님께서는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24. 1. 6(토요일) 오전10시
●장소: 대전 현충원(매점앞) (대전 유성구 갑동 산23-1)
● 연락처 : 14회 총무 허인범 (010-3420-6647)

“새해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충기19골프회 송년의 밤 30여명 참석

충기19골프회(회장 성기필, 총무 노기종)는 12월 22일 저녁 대전 서구 둔산동 맛청식당에서 서울, 경기, 울산 등 전국에 온 30여 명의 친구들과 송년모임을 갖고 회합의 시간을 보냈다.

성기필 회장은 “계묘년 한해 운동과 함께 우정을 쌓아 좋았다”며 “청룡의 해인 갑진년 새해더욱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라”고 덕담했다.

– 노기종 충기19골프회총무 –

총동문회 선거관리위원회 1차회의 개최

3만5천여 동문의 총동문회를 이끌어갈 제 23대 총동문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 위원회 1차 회의가 12월 28일 개최됐다. 23대 회장의 임기는 2024년 4월1일부터 2025년 3월31일까지이다

모교에 한국형틸딩열차 설치해놓고 “감개가 무량하다”

김재일 동문(아산특수 대표) 직원들과 직접 와서 꼼꼼히 작업

김재일(21회, 아산특수 대표) 동문이 지난 11월 24~25일 모교를 방문하는 횡재를 가졌다. 모교에 설치되는 한국형 틸팅열차의 운송 책임을 맡아 가장 안전하고 안정된 설치를 하기 위해서였다.

김재일 동문은 특수운송 트레일러를 8대를 보유하고 있다. 100톤 200톤급의 대형 화물을 운송하는 업체다.

경기도 소재 제조 공장에서 틸팅열차를 상차하여 새벽길을 천천히 달리고 달려 모교에 도착하였다. 아침 7시부터 하역을 하기 시작하였다. 궤도에 정확하게 안착작업을 하면서 목소리는 점점 커져간다. “여기는 내 모교야! 우리 후배들의 실습장이니 천천히 꼼꼼히들 하라고” 회사 대표인만큼 직원을 보내도 될 일이었다. 김재일 동문을 직접 모교로 오게 한 것은 충기 동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워서이다.

일에 바빠서 그동안 오지 못한 모교를 역사적인 틸팅열차 설치로 인해 방문한다는 게 기뻤다.

김재일 동문의 아산특수 회사는 올해 서울 용산에 있는 철도고등학교에도 틸팅열차를 설치했다. 철도고등학교에는 마침 백해룡(17회) 동문이 현직 교장으로 있어 인연의 소중함을 느꼈다.

백해룡 동문은 서울시교육청 내에 싱크탱크로 서울북부교육장을 역임하고 용산철도고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다. 철도의 관련분야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있는 동문들은 유난히 많다.

김재일 동문은 모교에 틸팅열차를 설치해놓고 “감개가 무량하다”며 모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 임동현 편집위원장 –

“스승과 제자 40년만에 눈물의 상봉”

18회 졸업40주년행사에서 극적 재회

18회 동문들이 12월 1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개최한 졸업40주년기념행사에서 황만지 은사와 제자 강종성 동문이 40년 만에 눈물을 흘리며 상봉했다.

– 임동현 편집위원장 촬영 –

“선생님 왜 이리 변하셨어요? “자네도 많이 늙었네 그려!”

“내가 그때 참 미안했네!” “쉿!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충청지역 최대 언론인 모임 수장 맡아

박동일 동문(17회) 목요언론인클럽 새 회장 선출

박동일 동문(17회)이 충청지역 최대 언론인 모임인 목요언론인클럽의 회장으로 선출됐다. 목요언론인클럽은 12월 7일 이사회를 열고 박동일 현 목요언론인클럽 사무총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박동일 신임 회장은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목요언론인클럽의 제28대 회장으로 뽑아주신 선배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선배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섬기겠다”고 말했다.

박동일 동문은 충기언론인회(회장 이우정)의 부회장으로 선배와 후배 언론인들의 가교 역할을 해 신망이 높다. YTN 부국장으로 은퇴한 신임 박동일 동문은 대전세종충남 영상기자협회장을 역임했고, 목요언론인클럽 내에서 심사위원장과 사무총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학력으로 한남대 일반대학원에서 언론학 박사를 수료했다.

박동일 동문의 이력과 경력은 다음과 같다. ▲(사)목요언론인클럽 사무총장 ▲세계지식재산뉴스 포털—WIPNEWS 대표 ▲한남대학교 언론동문회장 ▲전 YTN 부국장 ▲전, 대전세종충남 영상기자 협회장 ▲중촌사회복지관 운영위원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언론학 박사과정 수료 ▲한남대학교 언론홍보 학과 석사과정 겸임교수 역임

수입 현황

기간 : 2023년 11월 29일 ~ 2023년 12월 26일까지
입금계좌번호 : (농협) 351-0214-2218-53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모교사랑" 자동이체

방	1	박만영	10,000	화	13	박대균	10,000	기	20	박경하	100,000	전	25	김종필	10,000	배관	33	김명수	10,000
방	1	백운길	10,000	기	14	김병갑	10,000	기	20	여명찬	10,000	기	25	홍준용	10,000	기	33	오규성	10,000
상	1	오응수	10,000	기	14	백채준	10,000	전	20	윤성덕	10,000	기	26	김윤태	10,000	기	33	이명호	10,000
광	3	서한수	20,000	기	14	이종업	10,000	기	21	김기영	10,000	기	26	류한의	20,000	기	33	이재상	20,000
전	3	이우정	20,000	기	14	임화섭	10,000	기	21	김용근	10,000	배관	27	김도진	10,000	기	33	전우창	10,000
방	4	송석범	10,000	기	14	한경환	20,000	기	21	문길수	10,000	기	27	송형태	10,000	기	33	조승현	10,000
방	7	김민주	10,000	기	15	서경원	20,000	기	21	박원종	10,000	기	27	이문휘	10,000	전	34	공대성	10,000
자	7	조봉호	10,000	전	16	김희곤	10,000	배관	21	박찬권	10,000	기	28	강문식	10,000	전	34	최병관	10,000
광	8	김재겸	10,000	기	16	양희대	10,000	기	21	송석진	10,000	기	31	강두형	10,000	기	35	김정규	10,000
기	8	신도성	10,000	전	16	장보환	20,000	기	21	오흥석	10,000	기	31	권오진	10,000	기	37	박재현	20,000
화	8	이원승	10,000	기	16	조성서	10,000	전	21	임동현	10,000	기	31	김태용	10,000	기	39	김동연	10,000
전	8	임헌표	10,000	기	17	권오섭	10,000	기	21	장명국	10,000	기	31	남지현	10,000	금형	52	이승원	10,000
자	8	정기원	20,000	기	17	김용택	10,000	기	21	진춘식	10,000	기	31	오선균	10,000	기	53	이영욱	10,000
전	9	임세환고문	10,000	기	17	김종수	10,000	기	21	한석원	10,000								
전	9	임세환이사	10,000	기	17	김진덕	10,000	배관	21	황경아	20,000								
방	9	진한종	10,000	기	17	류승정	10,000	기	22	김갑수	10,000								
방	10	김영갑	10,000	기	17	민운기	10,000	기	22	김준수	10,000								
자	10	김창길	10,000	기	17	박기용	10,000	전	22	박종선	10,000								
전	10	오창균	10,000	기	17	박환정	10,000	기	22	이보윤	10,000								
자	10	이경세	10,000	기	17	백준현	10,000	기	22	정기채	10,000								
전	11	김용진	10,000	기	17	서승영	10,000	기	22	정연근	10,000								
전	11	박인삼	10,000	기	17	송선호	10,000	기	22	조영백	10,000								
전	11	오연진	10,000	기	17	양희곤	10,000	기	23	윤인섭	10,000								
전	11	이진권	10,000	전	17	오명진	10,000	기	23	이봉준	10,000								
광	11	조동호	10,000	기	17	윤재경	10,000	기	23	이주한	10,000								
기	12	김기섭	10,000	기	17	이상봉	10,000	기	23	임정호	10,000								
전	12	김기용	10,000	기	17	정관성	20,000	전	23	최상현	10,000								
기	12	라기원	10,000	금	17	정찬문	10,000	기	23	한병수	10,000								
기	12	서영환	10,000	기	17	최현주	10,000	기	24	김성기	10,000								
기	12	전종현	100,000	전	18	마수용	10,000	전	24	김용석	20,000								
기	12	정찬목	10,000	기	19	임운택	10,000	기	24	김형찬	10,000								
기	12	천명재	10,000	전	19	임형일	10,000	기	24	박종호	10,000								
기	12	황규표	10,000	기	19	최이석	100,000	기	24	안영호	10,000								
기	13	마평춘	5,000	기	20	김동로	10,000	기	25	강신철	10,000								

연회비 및 발전기금

상	1	이우철	20,000	자	9	김홍열	20,000				
자	2	김근식	100,000	광	9	박성하	50,000				
방	2	이동연	20,000	광	10	김화중	100,000				
전	3	배정식	20,000	화	13	유병돈	200,000				
전	3	홍명표	20,000	화	13	정진호	20,000				
전	6	유동환	100,000	기	14	진대영	20,000				
광	7	이동승	20,000	기	14	김승환	100,000				
전	8	박승희	20,000	기	14	백채준	300,000				
기	8	안상규	20,000	기	15	원상길	20,000				
화	8	이종웅	20,000	기	23	최병무	100,000				
단체		28회 졸업30주년기념 발전기금					2,000,000				
		18회 동문회 졸업40주년기념 발전기금					5,000,000				

회보광고비

광	6	오상근	50,000	기	18	장영우	100,000
기	18	박종용	50,000	기	24	이용주	50,000
금	18	유병각	50,000	기	39	김동연	50,000
기	18	장영옥	50,000				

"잠에서 깨어나 일어날 때 30초씩 세 번 지난 후 일어나라"

건강 상식 〈1분 30초의 법칙〉 많은 사람 목숨 구하는 비결

과학적으로 입증된 1분30초 법칙이다.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야 할 때 지켜야 할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때는 갑작스럽게 깨어서 정상적인 생리적 요구를 만들기 위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1분 30초 법칙" 을 숙지해 두십시오.

누군가가 건강상태가 좋았는데 밤에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사망했다고 하는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 화장실에 가기 위해 서둘러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뇌가 조금 더 쉬어야 할 시간이 필요한데 쉬지 못함으로 인해 뇌졸중이 일어납니다. 그 경우들이 대부분 혈액순환과 관계된 <기립성 빈혈>에서 비롯된 뇌졸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 앉았거나 누었거나 잠을 자다 일어나면 온 몸에 가라앉았던 혈액이 뇌에까지 전달될 시간이 필요한데 모든 조직들이 퇴화하고 있는 중장년들에게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 30초씩 3번에 걸쳐 <1분30초 법칙>을 습관 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꼭 잊지 않도록 습관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잠에서 깨었거나, 누었다가 일어날 때는?

1. 눈을 뜨고도 약 30초가량 그냥 누워 있는다. 2. 일어나면 침대 아래로 발을 내리거나 앉은 자세로 30초가량 그대로 있는다. 3. 곧게 일어설 때도 위기를 염두에 두고 30초 정도 느린 동작으로 몸을 세운 뒤 움직인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 나이에 관계없이 갑작스런 뇌졸중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집니다.

모든 가족 및 친구들과 공유하십시오. 정보를 공유하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방은 치유보다 낫다."고 합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드니 참 많이 바뀐다! 욕심은 줄어들고 생각은 깊어진다. 화려한 생활보다 소박한 삶이 좋고, 좋은 옷보다 편안한 옷이 좋으며, 짙은 향기보다 은은한 향기가 좋다. 복잡한 것보다 단순한 것이 좋아진다. 잘난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이 좋고 멋진 구두보다 편한 구두가 좋으며, 거친 파도보다 잔잔한 물결이 좋다. 외국산 양주보다 국산 막걸리가 좋아진다.

복잡한 도시보다 한가로운 시골이 좋고, 달리는 차, 빌딩보다 산과 흐르는 강물이 좋으며, 생명력 없는 벽돌담보다 살아있는 초목이 좋다. 세월은 쉼 없이 흐르며 나를 안고 돌아간다.

<모셔온 글>

동문 가족 여러분!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나날이 참 좋은 날 되세요!

남대전 기아 서비스
자동차 검사 . 보험 수리

대표 장 영 우 (18회) 010-2304-1500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276-14번지 (판현시험장)
TEL : (042) 282 - 1500 / FAX : (042) 282 - 1501
E-mail : jyu9839@hanmail.net

이름 조가네 갑 하는 오징어

충청지역 동문님들을 체인점 가족으로 모십니다. 기계과(15회) 조현기
명실상부한 한국 최고의 갑오징어 전문 음식점 | 합리적인 가격! 환상적인 맛!

조가네 갑오징어만의 경쟁력
1 본사 OEM 소스 공장에서 직접만든 소스 공급
2 전문적인 주방 기술이 필요없는 시스템
3 유행을 타지않는 독창적인 아이템
4 본사의 가맹사업팀 전문가들의 도움

가맹문의 1800-6084 www.jonlee.co.kr

조가네 갑오징어 대전관평점 ☎042-931-1375 세종점 ☎044-867-2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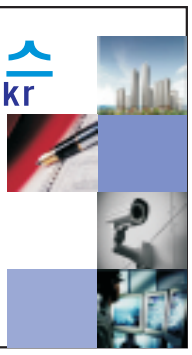
---

emp (주)이엠피서비스
www.empservice.co.kr

- 공동주택/건물종합관리
- 경비/청소, 정보통신공사
- 면세물류/근로자파견

대표 정 구 창 (10회)
H.P 010-5403-8902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13길 25,
에이스하이테크 2차 809호
TEL : 1644-2660, FAX : 02-701-7298



박 종 용 세무회계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1308번지
하이베라스빌딩 3층
(우)302-830
서대전세무서 앞, 제일은행 옆

세무사 박 종 용 (18회)
TEL : 042-471-6400, 6442
FAX : 042-471-6443
핸드폰 : 010-7680-3377
E-mail : pjy4716400@hanmail.net

매연저감장치
DPF 건식클리닝
월드DPF클리닝 수리전문

세계특허 NFHTP 건식버닝 방식

대표 이남희 (9회)
010-5438-6377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56-1
대표전화 1544-0572
FAX. (042) 934-2011
※ 토. 일요일에 예약가능 ※

(주)필 엔 텍
FIL & TECH

대표이사 진 춘 식 (21회)
010-8823-8548

CLEAN 장비, 공조용 FILTER 및 각종 산업용 FILTER

홈페이지 : www.filntech.com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20
(가온비즈타워 220~222호)
TEL. (042) 626-8548
팩 스. (042) 626-8549

SH
(주) 서한 ENC
MIURA 충청대리점

- 기계설비1종 설계 및 시공
- 열사용기자재 취급 및 시공
- 기계소방용품 및 안전용품 취급
- 안전관리 설계 및 시공
-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
- 산업용 탱크 및 식품기계

차장 김 동 연 (39회)

010.9813.0139
042.935.0280
042.935.0281
starkjpn@naver.com
www.seohanenc.co.kr
대전 유성구 테크노1로 37-9, B동 2층 202호

세무법인 YEE JEONG 이정

稅務法人 以 禎 유성지점

대표세무사
마 수 용 (18회) 010-4506-5089
[국세청 서기관, 북대전, 대전세무서 등 28년 근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875 비에스타워 506호 (충남대 서문앞)
Tel 042-719-8898 Fax 042-719-8810

신고대리 기장대리 불복청구 세무조사 양도 상속 증여

경우금속주식회사
【구리 동 파이프 판매업】

대표이사
강 희 창 (12회)
010-3568-6323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등원로 129번길 10
TEL : (031) 946-9813~4
FAX : (031) 946-9815
E-mail : kyungwoo9815@naver.com

페인트도소매
조색시스템
(3분조색 OK)
도 장 공 사

분체, 액체
열처리도장

제비표페인트 대연상사
제 일 테 크

유 병 각 (18회)
010-6424-723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89-1
(산업용재유통단지18동 135,136호)
TEL : (042) 670-7877, 7233
FAX : (042) 670-7876

싱크마스터

N : 싱크마스터

대표 이 승 원 (52회)
010-5823-2171

대전광역시 중구 당디로96번길 34
https://smartstore.naver.com/sinkmaster

주방기기
주방싱크볼
사각싱크볼
원앙, 아스타 네모
싱크볼, 교체, 설치

(주)코핸즈 대리점
(주)지에스에이 대리점
(주)에어스타 대리점

콤프레샤 주문제작 및 수리
에어 주변기기 일체

콤프레샤전문 콤프나라 www.compnara.com / www.hkmcomp.com

한 국 기 계

대표 장 영 옥 (옥빈.玉賓) 18회
cell : 010-5455-8786

매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38호 / 우. 306-754
Tel. 042 · 670 · 8962, 042 · 623 · 8962 / Fax. 042 · 670 · 8963
E-mail : hkmcomp@hanmail.net
공장

---

meritz
메리츠화재

걱정은 메리츠화재가 대신할게요

FP/ 대전본부
오 규 성 (33회)
Mobile. 010-9551-0418

매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T.042-337-4004 F.042-337-4009
34903. 대전 중구 계룡로 800 동아빌딩 2층 www.meritzfire.com

HYUNDAI GENESIS

카마스터
이 용 주 (24회)
010-3404-6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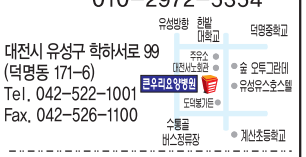
현대자동차
대전선화대리점
대전 중구 대종 545(선화동)

신차상담/할부/리스/렌트
TEL : 042-254-9000
FAX : 042-254-4000

큰우리요양병원
중풍, 치매, 뇌졸중 및 노인성 질환
호스피스 전문

병원장 오 상 근 (6회)
010-2972-5354

대전시 유성구 학하서로 99
(덕명동 171-6)
Tel. 042-522-1001
Fax. 042-526-1100



사회복지법인 밀알
http://milalbj.or.kr
대표이사 오 상 근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87 화성빌딩 4층
T. 042-627-0135 F. 042-716-7119
※후원계좌 : 하나 646-508185-00105 사회복지법인 밀알